

# 원자재, 중국경기 둔화로 “휘청”

WSJ, 부동산 규제로 금속·광물 가격 급락 ... 추가하락 가능성 높아

급성장하던 중국경제가 둔화하면서 금속과 광물 등을 포함한 글로벌 상품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4월 중순 이후 과열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이 18% 하락한 것을 비롯해 구리 13%, 납 19%, 니켈 27% 각각 내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거대한 건설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건설 붐은 글로벌 원자재 수요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7월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건설 시장이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2/4분기에 10.3%를 기록해 1/4분기의 11.9%에 비해 둔화됐다.

중국은 철광석 구매도 6월 들어 전년동기대비 15% 급감했으며 구리는 30% 이상 줄어들었다. 석탄 수입도 5월 들어 연중 최저를 기록했으며 조강생산의 성장세가 6월 들어 연중 최저로 곤두박질하는 등 중국 중공업의 성장성이 둔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농업자원경제국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철광석 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알루미늄과 구리, 아연의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IEA(국제에너지기구)는 7월 중으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에너지국가로 등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26>